

23-1 윌렘 드 쿠닝 아카데미 교환

오수희

윌렘 드 쿠닝 아카데미(Willem de Kooning Academy)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위치한 예술 학교입니다. 네덜란드계 미국인 추상 표현주의 화가인 윌렘 드 쿠닝의 이름을 딴 학교로, 로테르담 응용과학 대학교(Hogeschool Rotterdam)의 일부입니다. 아카데미는 현대적인 접근으로 유명합니다. 국제 학생이 많고, 교류를 장려합니다.

교통

자전거

자전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있고, 평지로 이뤄져 있어서 자전거를 타기 쉽습니다. 교환 학생을 와서 지내는 분들을 보면 1) 자전거를 구입 2) 자전거 장기 대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생활하시더군요. 자전거를 구입할 경우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보통은 네덜란드어로 되어있어 찾기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달마다 결제를 하며 대여하는 자전거 렌탈 서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 렌탈 서비스의 장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렌탈 서비스 업체에서 무료로 수리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시내 곳곳에 지점이 있구요. 그리고 학생할인이 적용되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을 할 경우 귀국할 시 처분이 문제되고, 오래 자전거를 쓰다보면 기어 문제 같이 고장나는 경우가 잦을 수밖에 없으니 도착하자마자 렌탈하는 걸 추천드려요. 최소 대여 단위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가 한국과 다르게 바퀴가 크고 차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신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 자전거가 다들 익숙한 만큼 도로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해서 그 속도를 따라가기에 버거울 수 있습니다.

로테르담의 경우 도시 자체가 굉장히 작으면서 주요 시설이 모여있고, 트램과 지하철이 잘 되어있어서 걸어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교통카드와 구독제 요금

네덜란드는 한국의 티머니 카드처럼 오비칩카드라는 교통카드를 사용합니다. 이

오비칩카드는 익명(무기명)과 실명 카드로 나뉘는데, 익명 오비칩 카드는 선불 충전식, 실명 오비칩 카드는 후불 청구식입니다.

익명 오비칩 카드는 지하철 역 근처에 위치한 기계에서 7.5유로를 주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증금이어서 환급해주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티머니처럼 구매 형식이 되어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 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여행 다녀온 사람이나 단기 거주로 다녀온 사람들이 판매 또는 나눔하는 경우가 드물게나마 있으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착하고 나면 긴장하고 피곤한 상태일 텐데 기계를 사서 충전하는 일도 꽤 힘이 들거든요. 충전은 마찬가지로 지하철 역 기계에서 합니다.

실명 오비칩 카드는 한국에서 준비하고 가는 것 자체가 꽤 어렵습니다. 현지 계좌로만 등록할 수 있거든요. 현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선 주거 등록을 한 후 BSN이라는 등록 번호를 발급받은 상태여야해요. 만약 무사히 계좌 발급에 성공했으면 실명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할 때 구독제 요금을 선택할 수 있어요. NS에서 운영하는 기차에 할인이 적용되는 건데, 한 달에 약 40유로를 내면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주말동안의 네덜란드 내 기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줘요. 만약 주말동안 바쁘게 네덜란드 곳곳을 여행 다닐 계획이 있다면 플릭스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구독제 요금을 가입해 기차를 이용하는 게 편하고 오히려 저렴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구독제 요금은 NS에서 운영하는 기차에만 적용돼요. 현지 내 트램이나 지하철에는 적용이 안 돼요. 현지 트램과 지하철은 해당 지역 관리하는 회사에서 따로 무제한 구독제 요금을 판매하는데, 네덜란드의 일회당 교통비가 비싸다하더라도 네덜란드 시내가 워낙 좁아 걸어 다녀도 충분하기에 그렇게 큰 메리트는 못 느꼈어요.

만약 선불로 충전하는 것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NS 기차를 자주 이용할 계획이 없다면, 초반에 구매한 익명 카드를 그대로 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길 바라요.

생활

주거

학교에서 연결해주는 SSH Student Housing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고 저렴하고 마음에 부담이 적습니다. 다른 방법은 모두 몇십 유로 이상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SSH에서 집을 구하는데 실패했다라도 몇 주에서 한 달 뒤쯤 방이 남았다는 메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저는 Robert Baeldestraat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기숙사 바로 앞에 작은 호수가 있고, 10-15분 정도를 걸어가면 Kralingse Bos라는 큰 호수가 나옵니다. 봄에서 여름까지 새끼 오리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숙사 근처에 대형 마트도 있고, 학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무엇보다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이면 기숙사 꼭대기 층 Common Room에서 파티가 열리기도 했는데 기숙사 조교가 시끄럽다고 밤에 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미래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제게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기숙사였습니다.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뮤지엄 패스

네덜란드의 뮤지엄 패스는 네덜란드 내 다양한 미술관과 박물관 대다수를 무료로, 무제한으로 입장할 수 있는 패스입니다. 뮤지엄 패스로 Rijksmuseum, Van Gogh Museum, Mauritshuis, Anne Frank House 등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덜란드에 간 즉시 사서 거주 기간 내내 즐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뮤지엄 패스를 65유로에 구매하면 총 5회를 미술관/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는 임시증을 발급해줍니다. 한 달 이내에 뮤지엄 패스를 온라인 웹사이트에 등록해야 일 년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지만 정말 추천하고 싶은 미술관은 덴 하그에 있는 'Kunstmuseum Den Haag'라는 현대미술관입니다. 몬드리안과 에셔의 작품들을 입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최고의 미술관입니다. 지하에 있는 공간도 방문하시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킹스데이

혹시 연극 <로테르담>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중에서 인물이 킹스데이이라며 전신 오렌지 복장을 입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당시에는 연극적으로 과장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더 심하더라고요. 온 세상이 주황색이 됩니다.

네덜란드는 아직 왕정제 국가이고, 왕가를 상징하는 색깔이 주황색입니다. 왕의 생일날을 킹스데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휴일이 됩니다. 현재 즉위한 왕의 생일이 4월 28일인데, 4월 초부터 많은 가게에 주황색 악세사리를 팔기 시작해요.

현지의 분위기는 정말 엄청나게 축제를 즐기는 분위기예요. 다들 돗자리를 들고 나와 술을 마셔요. 도시 곳곳에서 유료 음악 페스티벌은 물론, 무료 디제잉 길거리 파티도 열리고요. 다만, 이때 공격적인 인종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긴장한 채로 나갔는데, 대마 클럽 같은 곳을 조심한다면 괜찮겠다는 감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곳곳에서 대마초 냄새와 취한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간다면 즐기되, 방심하진 않는 걸 추천합니다.

킹스데이의 또 하나 독특한 특징은 당일 하루 동안 무허가로 가판대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리마켓과 음식 가판대 등이 곳곳에 열립니다. 제가 갔을 때도 각 나라의 유학생들이 모국의 음식을 파는 장사를 하더군요. 또, 거리에서 수리남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만약 이런 가판 행사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가거나, 현지에서 친구들과 뜻 모아 가판대 장사를 준비해도 재밌는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빈티지 마켓

암스테르담이 빈티지 마켓으로 가장 유명하지만 로테르담에도 괜찮은 중고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암스테르담에 비할 바는 아니지요. 유럽에서 가장 큰 빈티지 및 중고 시장인 IJ-Hallen은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이 시기를 노려 암스테르담으로 여행을 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입장료가 있지만 충분히 그 가치를 한다고 하네요.

교환학생을 갈 때 옷은 최대한 적게 챙겨가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WDKA의 경우, 학생들이 안 입는 옷을 교환하는 행사도 학기에 한 번 열렸습니다. 끝날 때쯤 가면 좋은 옷들을 많이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학생 동아리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행사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업

학기 제도와 수업

한국과는 학기 제도가 다릅니다. 제가 다녀온 1학기 기준으로 치면, 한국의 한 학기가 2.2학기, 2.3학기, 그리고 Elective(1주)와 플러스 플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2학기에는 전공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3학기에는 다양한 학과가 원하는 수업대로 나뉘어 팀 프로젝트를 합니다. 나머지는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만 개인 단위로 진행하는 것은 3주 정도 밖에 없는 셈이지요. 팀으로 시작해 팀으로 끝나는 수업들이 많았습니다. 교환학생의 특성상 학교의 사람들을 잘 모르다보니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학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문화가 다르다보니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주제들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고민할 거리가 많습니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예술 학교 커리큘럼을 적당히 섞으면 이보다 좋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mywdka.nl이라는 사이트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누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주 변동되는 시간표가 즉시 반영되기 때문에 수업이 있는 날에는 한 번씩 확인을 하고 가게됩니다.

Stations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리서치 스테이션을 비롯해 드로잉 스테이션, 스튜디오들로 구성된 이미지&사운드 스테이션, 약속을 잡고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비즈니스 스테이션 등 학교 곳곳에 스테이션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이션들은 특정한 학과에 소속되어있지 않고 자유롭게 약속을 잡거나 방문해 실험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재료들과 조건들이 있는 곳이라 여러번 방문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각 스테이션마다 튜터가 상주하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호그와트

학교 건물은 호그와트 같습니다. 저는 길을 잘 찾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초반 세 차례정도 학교 안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계단이 많고, 건축이 독특해요. Blaak과 Wijnhaven이라는 두 개의 건물이 연결되어있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조를 저절로 파악하게 되실테니 걱정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Wijnhaven 출입문 위에 있는 소세지 걸린 자전거가 언제부터, 왜, 누가 세워놓았는지 알게 되시는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도 모르더군요.

음식 문화

수리남 음식

16세기 경 대표적인 식민 제국이었던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로테르담에는 수리남 이민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보기 쉽습니다. 수리남 음식점에서는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네덜란드 등 다양한 나라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킹스데이와 같은 축제 날에는 길거리에서 수리남 음식들을 팔기도 합니다.

Kapsalon

Kapsalon은 케밥 음식점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미용실을 뜻하는 Kapsalon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바쁜 미용실 주인이 처음으로 이 메뉴를 주문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고, 감자튀김, 슈와마, 소스, 치즈, 채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맛은 보장됩니다.

대형 마트 체인

네덜란드에는 대형 마트 체인들이 많습니다. 알버트 하인(Albert Heijn)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비싼 편입니다. 움보(Jumbo), 알디(Aldi)도 대표적이거나 저는 리들(Lidl)을 애용했습니다. 한국에 올 때 기념품으로 각종 마트의 대형 가방을 챙겨왔습니다. 그 정도로 다양한 대형 마트는 네덜란드를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테르담의 물가는 유럽 기준으로는 중간 정도에 속합니다. 할인 행사와 회원 혜택을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 7일, 아침 10시 경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비건 음식들에 대한 선택지가 많고 맛도 있는 편입니다.

비건 음식

비건이라는 옵션이 너무 당연시되어있습니다. 동네의 작은 가게를 가더라도 반드시 비건 메뉴가 하나 있고, KFC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에 가도 당연히 있습니다. 카페에 가도 비건 옵션이 당연하고요. 그래서 현지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 어느 장소를 잡더라도 부담 없이 갈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한국 사회와 다르게 현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건은 신념을 넘어서서 생활 방식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건인 분들은 생활하기 편하실뿐더러, 비건이 아니지만 시도해보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너무나 쉽게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해링

청어 소금 절임입니다. 네덜란드는 중세 무렵부터 청어로 부를 쌓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어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청어 절임은 시장에서 빵에 끼어넣는 길거리 음식 형태로는 물론, 웬만한 마트에서도 기본적으로 팔아요. 맛은 물기 있고 짭짤한 과메기와 비슷했어요. 생각보다 비린맛이 강하지 않았어요. 특히 짭짤해서 빵에 다진 양파를 얹어 먹으니 꽤 좋았어요. 날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응 초창기에 많이 찾아먹을 수 있어요. 유럽에서는 회를 보기 힘든데, 회와 유사하면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해서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초여름~초가을에는 그해에 잡힌 햇 청어로 잡힌 햇 청어 절임을 파는데, 상품 자체에 햇청어라는 걸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해요. 법적으로 그해 잡힌 청어가 아닌 상품에 햇청어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면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기가 맞는다면 마트에서 햇청어절임을 한 번 즐겨보세요.

치즈

끝내줍니다.

교환학생을 마무리하며 후기를 작성해보니 담지 못한 내용이 너무 많아 아쉽습니다. 혹여 제 교환 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xoffinch@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